

광양시, 포스코O&M과 손잡고 안전도시 만든다

시설물 점검·관리 업무협약

지역협력사업 봉사활동도 병행

광양시가 안전한 도시 구축을 위해 지역 민간기업과 맞손을 잡았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소재 시설관리 전문기업인 포스코O&M의 축적된 노하우를 지역사회 취약시설의 사전 안전점검에 활용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과 김정수 포스코O&M 사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포스코O&M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광양지역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최대한 활용할 것을 협약했다.

포스코O&M은 1994년 창립 이래 포스코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적용해 종합 부동산서비스, 인프라·플랜트, 인테리어, 레저 등의 분야에서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이라는 경영이념으로 사회

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With POSCO (포스코와 함께)'를 실천하면서 종합관리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시설관리 선도 기업이다.

포스코O&M은 광양제철소 소유의 공공·후생시설, 연구시설, 몰오브광양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협력 사업으로 세풍 아동센터 공부방 설치, 햇빛마루 주간보호센터 시설 보수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쳐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O&M은 전문 점검장비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해 광양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시설물 긴급 보수 지원과 봉사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호 부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서로의 역량을 모아 보다 안전한 광양을 만들고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6월 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을 부서별로 추천받은 후 포스코O&M과 협의를 통해 7월부터 매월 1회 시설물 안전진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가 지난 3일 시청에서 지역 시설관리 전문기업인 포스코O&M과 취약시설의 사전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양시 제공>

여수시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100명 선착순 모집

여수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건강위험요인을 보유한 여수시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 1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담팀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마트 밴드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신청자격은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검진을 통해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되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않은 여수시민이다.

참여방법은 전화로 상담 후 사전예약을 하고 검진일정에 맞춰 보건소에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여수시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최초-중간-최종에 걸친 검진을 3회 실시하고, 매월 집중상담과 미션부여로 건강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박소희씨 대통령상 수상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 역대최다 282팀 312명 참가

구례군이 주최하고 (사)가야금병창보존회가 주관한 제19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박소희씨(24·서울)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지난 4-6일 구례자연드림파크 ICA홀에서 열린 경연대회에는 282팀 312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참가해 초·중·고등부, 신인부, 대학부, 일반부의 가야금 산조, 병창, 창작 등 총 14개 부문에서 경연을 펼쳤다.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언택트 방식으로 개최됐다. 예선전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했으며, 본선만 대면심사로 진행했다.

비대면 심사는 참가자들이 영상을 촬영해 제출하면 심사위원은 영상을 보고 심사하는 방식이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모든 심사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최고상이자 일반부 대상인 대통령상은 박소희씨에게 돌아갔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원과 부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고흥군 국악기연구원의 산조 가야금 1대가 주어졌다.

이와 함께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심사는 이재숙(서울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심사위원이 맡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녹동신항 배후부지에 다기능 복합쉼터 조성

올해 말까지 숲·정원 등 들어서 소득도·거금대교 조망 공간도

고흥군은 녹동 신항 여객터미널 인근의 유휴부지에 관광객과 주민을 위한 다기능 복합쉼터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고흥군은 9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녹동 신항 여객터미널 배후부지 7000㎡에 생활 밀착형 숲과 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 밀착형 숲에는 주변의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정원과 주제 정원이 들어서게 예정이다.

'바다를 품은 정원'을 주제로 소목도와 거금대교, 거금도 등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과 주민

들에게 열려있는 쉼터가 조성된다. '바다 꽃길'을 주제로 배와 돛 모양의 광장과 수국, 동백 등으로 공동체 정원도 꾸밀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군민들이 정원 등 녹색 공간을 찾고 있는 만큼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숲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광양시 공무원·기관·단체·기업 임직원 920명 매실농가 일손돕기



광양시 공무원들이 매실 수확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고령농가와 부녀농가, 장기 입원 농가 등을 대상으로 매실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공무원 320명을 비롯해 지역 내 기관·단체·기업 임직원 등 600여명이 매실 수확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제공>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순천시, 국비 30억원 확보



지난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한 하동보건진료소.

순천의 공공건축물 6곳이 고에너지 효율의 친환경 건축물로 거듭난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그린뉴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응모해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지소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 가운데 준공된 지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고성능 창호와 고효율 단열재, 방한방 설비, 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설치·교체해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연내 외서보건지소, 승주어린이집 등 6곳을 대상으로 친환경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의 경우 6곳의 리모델링을 수행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노후 건축물은 부분 개보수로는 냉난방 효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 시 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생태도시로서 순천의 명성과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천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